

보도 일시	2022. 8. 31.(수) 11:00	배포 일시	2022. 8. 31.(수) 11:00
담당 부서	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	책임자	과장 강지은 (044-203-2831)
		담당자	사무관 윤지숙 (044-203-2829)

## 일본·대만·마카오 한시 무비자 시행 10월까지 연장

- 문체부, 무비자 연장 계기 방한 외래객 수요 증대를 위해  
 다양한 국내외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 -

문화체육관광부(장관 박보균, 이하 문체부)는 법무부, 외교부, 질병관리청 등이 참석한 ‘제102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’에서 일본·대만·마카오 대상 한시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이 10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고 밝혔다.

**8월 무비자 시행에 따른 방한객 증가 효과 등을 고려해 10월까지 연장하기로**

‘서울페스타 2022’ 행사 계기로 8월 4일부터 도입한 무비자 시행 결과, 일본과 대만의 8월(8. 1.~21.) 하루 평균 방한 외래객은 7월 대비 97%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.

또한 9월과 10월에도 가을 성수기를 맞이해 다양한 대규모 국제행사\*가 예정되어 있어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, 관광업계는 일본·대만·마카오 대상 무비자 적용 연장을 건의해 왔다. 이에 정부는 국제행사 계기 방한 외래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회복 지원을 위해 한시 무비자 연장을 결정했다.

\* 한국문화축제(9. 30.~10. 8.),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방탄소년단(BTS) 콘서트(10. 15.), 부산국제영화제(10. 5.~14.),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(10. 27.~10. 30.), 서울국제트래블마트(9. 27.~10. 1.) 등

**방한 외래객 수요 증대 위해 다양한 국내외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**

문체부는 주요 방한국인 일본·대만·마카오 대상 무비자 시행 연장을 계기로, 방한 외래객 수요 증대를 위한 다양한 관광홍보 마케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. 대만 여행업자 홍보여행(8. 30.~9. 4.)을 시작으로 한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해외 현지 문화·관광홍보 행사를 개최하고 한국관광 해외 광고도 대규모로 집행할 계획이다.